

술정이

주의 수난 성지 주일

제 1 독서 : 이사 50, 4-7
 제 2 독서 : 필립 2, 6-11
 복 음 : 마르 14, 1-15, 47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마르 14, 36).

강론

“호산나, 호산나!”

이순성 신부 / 광주가톨릭대학

오늘은 예수님의 성도 예루살렘 입성 기념일이다. 기념이란 한번 지나간 사건을 머릿속에 되새기고 마는 일이 아니다. 한번 있었던 사건을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현실이 되게 하는 일이 기념이다. 예수님의 성도 입성을 기념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기념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복음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두 가지 용어를 통해서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호산나’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자손’ 혹은 ‘다윗의 나라’라는 말이다.

본래 말의 뿌리를 아람어와 히브리어에 두고 있는 ‘호산나’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구조를 청하면서 외쳐대던 말이었다(1사무 14, 1 ; 2열왕 6, 16 ; 시편 118, 25). 말하자면 ‘부디 구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복음에 소개되어 있는 그 말도 같은 뜻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

한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살펴봄으로써 그 말의 뜻을 밝힐 수 있다. 다윗은 하느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특별히 선택된 사람으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현존으로 늘상 지켜주시어(1사무 16, 1-13) 왕으로서 그리고 해방자로서 승리하게 해주시던 이(2사무 8, 14)였다. 요컨대 하느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2사무 5, 2)로 삼으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 이후의 세대들은 고통과 꿈박 속에서도 항구하게 다윗에 대한 회상을 했고 또 하느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후손, 즉 도유된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했던 것이다.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약속의 성취 곧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언한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처럼 그분이 다윗의 도시인 예루살렘(2사무 5, 6-10 ; 6, 1-19)에 ‘자손’으로서, ‘메시아’로서 입성하셨던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루가 19, 28이하 ; 요한 12, 12이하 참조).

바로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기념해야 할 내용이 분명히 드러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온갖 질병의 고통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율법의 압제에서 그리고 불의로 인한 시달림에서 해방시켜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시기 위한 오늘의 사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분의 사건을 현실이 되게 해야 한다. 그분의 입성은 마치 텔레비전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감격스런 한 장면처럼 여겨져서는 안될 일인 것이다.

소리

“지자제 잠재우기”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 여러 도둑이 모여서 훔쳐온 것들을 나누는데 물건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에 큰 도둑이 말한다. “우리들 중에도 양심이 없는 놈이 있는가 보다.” 이와 같은 양심이 다시 ‘공명정대’를 부르짖는 격으로, 크게 들통나기 시작한 수서 비리의 큰 손은 불쑥 지자제라는 ‘찰떡’을 내밀어 보이며 소원껏 나눠줄 것을 거듭거듭 약속한다. 부디 소원대로 먹으려면 무리짓지 말고, 떠들지 말고, 잠자듯 있어야지, 덤벙대면 법으로 다스리겠단다. 이른바 ‘공명선거’의 다짐이다.

이제까지 역대의 집권자치고 공명선거를 소리 높이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공명선거를 치른 일 또한 한 번도 없었다. 한데, 이번은 그런 분발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높구나 했더니, 선거판은 이상하게 썰렁해지면서 이상한 ‘후보 사퇴’가 연달아 일어났다. 그리고 묵혀둔 공약 보파리가 푸짐하게 풀려나왔는데, 거의 모두가 잊어버릴 뻔했던 공약의 계당들이다. ‘5공’식으로 어리석게 자꾸 짚눌러대는 것보다도 약게 업어치기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멍들게 나가떨어지는 법임이 새삼스럽다.

큰 불집을 지자제로 잠재우고 다시 지자제 잠재우려는 음모 앞에 더욱 정신차려 눈을 뜨고 뒤돌아볼 일이다. 이력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5공의 친형제가 6공이고, 밀실 야합의 공통 여당이고, ‘새마을’ 비리보다 더 검은 수서 흑막의 정권이며, 무엇보다도 지자제의 약속을 별나게 뒤집고 또 뒤집은 집권자인 것이다. 이리고도 정부 불신의 자세를 점잖게 나무라는 그 회한 통치술 앞에 이제는 국민도 식상할 만큼 되었을터이다. 더구나 안기부와 이름날린 군부로 하여금 옛 소련식 비밀 경찰(K. G. B.)에 끗지 않은 뒷조사 뒷공갈로 선거의 후보를 조정해왔다는 보도들이니, 유권자는 ‘지자제 잠재우기’의 속셈과 맞서는 투표를 해야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거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배고픈 도둑질은 배불려지면 고쳐지지만, 배부른 도둑질은 배부를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이다. ‘구조적 부페’를 두고 하는 말이다. [■]

술정이 산책



성삼일을 빠짐없이…

“성주간”

‘주의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십자가의 길을 바칠 때 각 처마다 반복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서처럼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사순절을 마무리짓는 성주간(성지 주일-부활 성야)은 부활을 앞두고 죄악과 죽음, 생명과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시기요, 교회전례의 정점을 이루는 시기이다. 이 성주간 중 특히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을 성삼일이라 하여 특별히 거룩히 지내야 하고 신자들은 가능한 한 모든 전례에 적극 참여할 것을 교회는 가르친다.

성목요일-이날은 예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고, 당신의 사제직을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주셨음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오전에는 교구의 전사제들이 주교좌 성당에 모여 주교님과 함께 미사를 집전하며 서품 때의 서약(정결과 순명)을 간신하고, 일년 동안 사용할 예비자 성유, 병자 성유, 크리스마 성유를 축성한다. 신자들은 평생을 주님의 제단에 봉사하는 사제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녁에는 당시를 만인에게 성체성사로서 주심을 기념하는 만찬미사가 거행되고 “서로 사랑하라”(요한 13,34)는 세계명이 선포되며 당신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세족례가 이어진다. 영성체 후 본 감실을 비우고 성체를 현양제대(무덤제대)에 모시고 본 제대를 벗기고 십자가를 가리며 종과 악기 사용을 금지한다. 이는 예수께서 3일 동안 땅에 묻혀 계셨음을 드러낸다. 신자들은 현양제대에 모셔진 성체를 조배한다. 이는 올리브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기까지 기도와

번민으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다. 성체조배는 성금요일 수난예절까지 이어지며 이때 신자들은 인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깊이 묵상해야겠다.

성금요일-이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신 날로 교회가 미사를 드리지 않는 유일한 날이다. 이는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 위함이다. 오후 3시 또는 저녁에 거행되는 수난예식, 말씀의 전례, 장엄기도, 십자가 경배예식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죄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하신 주님의 고통과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겠다.

성토요일 [부활 성야, 망부활(望復活)]-이날은 주께서 무덤을 여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참삶으로 건너가심(빠스카)을 기억하는 밤이다. 즉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 죄의 어두움에서 영생(부활)으로 건너감을 체험하는 거룩한 밤이다. 사순절의 마지막이자 성삼일의 정점인 성토요일 밤의 전례는 불과 부활초를 축성하고 행렬을 한다. 이는 부활로써 어둠을 물아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기 위함이다. 말씀의 전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고 구원의 은총을 기원하며 장엄하게 대영광송을 노래한다. 성세수 축성과 세례식 후 모두가 촛불을 밝혀 들고 영세자와 함께 성세서약을 간신하며, 영성체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합, 그리스도의 빛이 자신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 주님 부활했네, 알렐루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미의 노래를 준비하자.

예수 수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

박 은 서(루가)
／서신동 천주교회

파아란 하늘은 말이 없네
성로를 가시던 날
그 무거운 주의 마음에 대하여…

파아란 하늘은 말이 없네
주검을 딛고 생명으로 가시던
그 위대한 주의 사랑에 대하여도…

죽음보다 더 큰 사랑
길머리에 뿌리시며
온 인류의 곤욕을 묵묵히 가름하여
심장을 겨냥한 창을 마다 않으시던
오호!
죽음을 이기신 당신의 죽음이여!

조용히 귀기울이면
말없는 하늘이 주는 계시
마음 안으로 합장하고
땀과 눈물과 기어이 피로 물든
십자가의 길 묵상하여
내 안에 찾아오신 내 님 사랑하오리.

떨리는 죄인의 마음은
당신 능욕의 수난을
아로새긴 통희로 하여
속세의 고통과 시련 인종하면서
영광의 길 향하여 살아가오리.

주단·침구·흔수 전문
부인주단
김한중(요한)
황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역
☎ 84-7294

비비안·빅 맨
남문 전문점
최보근(루시아)
전주시 원산구 전동 남문 옆
☎ (0652) 82-0891

맥주의 참맛을 즐기십시오
카이저호프
*아르바이트생 모집(신자 환영)
☎ 85-8801
(한성여관 시거리)

공인 중개사
송영은(돈보스코)사무소
☎ (0652) 87-0088
83-0087
83-0088
무선호출기 201-7220
전주시 서서학동사무소 옆

잠깐!

“어느 사제의 변(辯)”

오는 28일(성목요일)은 예수께서 당신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당신의 사제직을 나누어주셨음을 기념하는 날이다. 말하자면 사제들을 위한 날인 셈이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주교직이 명확하게 부각되고, 평신도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면서 사제들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과 사랑이 소원(疎遠)해지고 있다. 물론 그것은 사제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결핍하면 “우리 신부님은 고집세고, 편협하고, 사치하고…” 마치 친구 대하듯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 같다.

사제생활 10여년! 사제의 신원은 인류구원을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예정보다는 끊임없이 회생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정말이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제들의 갈등과 아픔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이를테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기에 적어도 인간적으로 한 사람도 깊이 사랑할 수 없다든지, 세계에서 한국 신부들이 사목에 제일 혹사당하고 있다든지, 때로는 술을 파는 여인처럼 피울음을 삼키며 억지 웃음을 지어야 한다든지… 사제로서 살기엔 유혹도 많고 힘든 세상, 사제들에 대한 비난보다는 예정어린 충고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제들을 지켜야 함이 옳지 않을까?

이 밤! 잠 못이루는 사제를 생각하며 부활이 오면 주님을 위해 한생을 살아온 할아버지 신부님을 찾아가 실컷 울어야겠다.

교구소식

- 주교님 성삼일 전례 일정 : 28일(목) ① 성유 축성미사—중앙 성당 오전10시30분 ② 주의 만찬미사(세족례)—순창 성당 오후7시30분, 29일(금) ① 십자가의 길—치명자산 오후3시
- ② 십자가 경배 예절—장계 성당 오후7시30분, 30일(토) 부활 성야미사—중앙 성당 오후8시, 31일 부활 주일미사—중앙 성당 오전10시30분.
- 주교님 미주지역 사목방문 : 4월2일~5월28일까지.
- 본당 사무장·사무원 소풍 : 4월3일(수)~4일(목), 3일 오전8시30분 가톨릭센타 출발..
- 초등부 교사학교 : 4월7일 가톨릭센타 강당.
- 전북일보 천주교 고정란(7면) ‘성당의 종소리’ 안내 : 25일(월)~그레고리안 성가의 밤(홍보국), 27일(수)~이젠 외롭지 않다(최용준 신부), 30일(토)~성속 이원론(정인선 선생). 6. 여자 젠모임 : 31일 오후2시~5시 가톨릭센타 별관 1층 대상~중3~성인.
7. 고경훈 신부(남원 성당)의 모친 이용임(글라라·91세) 선종 : 노환으로 3월15일 새벽1시에 별세, 3월17일 12시30분 고산 성당에서 사도예절 지냈음.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8.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3월29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박대덕 신부.
9. 성지순례 안내 봉사자 모임 : 4월2일(화) 오전9시30분 홍보국.
10. 대야 성당 FAX 번호 : 451-5417. 11. 전화번호 신설 : 노송 성당 보좌신부 82-9664.

- 마리아의 집 안내**: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 보호가 필요한 미혼 여성,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여성, 가정불화로 고통을 겪는 여성에게 숙식을 제공해주며 상담과 신앙교육을 해주고 있다.

문의—착한목자수녀회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94번지 (0361) 55-4617.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창조 질서 보전-(8) 자주 쓰지 않는 제품들은 이웃과 공동으로!

없는 물건을 무조건 사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먼저 이웃과 함께 쓰도록 합시다. 세탁기, 다리미, 청소기 등, 함께 사용하여 제품도 아끼고 이런 일을 통해 이웃과 더욱 가까이 지냅시다.

축! 개업
진선미 웨딩드레스
가장 우아하고 세련된 웨딩드레스
맞춤 판매 대여 부케
폐백 의상 연주복 신부복장
아리시 목회예식장 염
☎ 52-1187
정기연 (치밀로) 황인덕 (마끄라)

대한체육사
반도스포츠(낚시)
수영기(베드로)
준이(안나)
이리시 창인동 1가 147번지
☎ 855-9887, 857-6600

우리편집
모범업소(조리사의 집)
박성환(조리아이)
김명숙(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 (중앙성당앞)
☎ 85-8848



교사초빙

- 과목 및 인원수
 ① 해성중-국어, 도덕, 지구과학, 미술, 과학(물리·화학·생물)
 각 1명
 ② 성심여중-국어, 수학, 영어, 사회(지리), 체육, 가정
 각 1명
- 제출 서류: 이력서, 학적등본, 교원자격증 사본,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대학 성적증명서 각 1통
- 서류 제출처: 해성중 사무과 251-9735
 성심여중 사무과 84-3244
- 마감 기한: 1991년 3월 28일(목)
 오후 5시
- 전형 방법: 서류 전형 후 면접
 대상자는 개별 통지함

학교법인 해성학원

자연건강법 교육 및 환자 상담 지도

14시-17시(일요일 공휴일 제외)
 ※ 토요 건강 강좌 8주 코스
 회비 30,000 원
☎ 82-2933
 서서학동 대명 APT 11동 509호
 평화분회 김순자(로사리아)
 후원: 동산동 성당 주임신부 소순형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돌부보쌈
오재천(안드레이)
정봉교(마카렐라)
효자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8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목설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노승남

* 고통받는 이를 위한 2차헌금 있음.

1. 성삼일 예절 안내:

- ① 성목요일-i) 주의만찬 및 세례례. 저녁8시 ii) 혼양제례-밤샘제례조례(계시판 참조).
- ② 성금요일(금시·금우재)-i) 수난예절 및 십자가경배 저녁8시 ii) 십자가의 길-후3시.
- ③ 성토요일-부활성야예절 저녁10시.

2. 예수부활대축일 미사안내: 새벽미사만 없고 주일과 감음.

3. 부활계란 통한: 30일 오후5시까지 사무실에 내주시세요.

4. 금주침소: 동진1·2·3반 차주침소-남도1·2반.

□ 지난주 봉헌금: 859,180원 □ 교무금: 2,172,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 오늘은 성지주일입니다.(2차헌금 있습니다)

1. 성삼일 전례: 성목요일(28일), 주의만찬미사(8시) 성금요일(29일)-십자가의 길(오후3시), 주의 수난예식(8시) 성토요일(30일)-부활성야(8시). * 전례당당 및 성체조례시간은 유인물을 참조하십시오.

2. 사순절 저금통 다음주일(31)부터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장단 회의: 다음주일 저녁미사후.

4. 성당청소(30일): 바다의 별Pr. 자비의 모후Pr.

성주간 전례: 유인물을 참조.

□ 지난주 봉헌금: 532,240원 □ 교무금: 1,718,3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 오늘은 주의 수난 성지 주일: 사랑의 단식제 2차헌금 있음.

1. 부활안내: 성목요일-성유축성, 10:30, 중앙성당 주의만찬-저녁8:00 해설-송봉덕 녹서① 한동욱 ② 김연순 성금요일-십자가의 길, 오후3:00, 친명자산 십자가경배-저녁8:00 해설-여정진 녹서① 이동숙 ② 김순이 성토요일-부활전야, 저녁8:00 해설-송봉덕 녹서① 양주태 ② 정미순 ③ 장덕용 ④ 이석남 시간-유순천 봉헌-유춘근, 유순천씨 부부. 부활대축일: 해설-이승복 녹서① 최상운 ② 김금자 봉헌-이기봉, 이준희 씨 부부 공식미사후 축하행사 있음. 2. 판공밀집: 24일 ~ 27일-직장인 판공, 25일~병자판공, 26일~6구역(내정, 서당, 공기, 남관, 용암). 3. 성가대원례회: 30일 저녁미사후. 4. 금주 전례: 해설-여정진 녹서① 최원규 ② 강경자 봉헌-황내호. 황상호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46,210원 □ 교무금: 191,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오늘은 주의 수난 성지주일!(사순절 공동헌금의 날 2차헌금 있음)(성주간).

1. 회의: ① 꾸리아-오늘(3월24일) 오후2시. 2. 알림: ① 부활절판공성사-평일미사전후에 판공성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친신자분께서는 판공성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부활대축일전) ② 영세식-3월30일 오후3시, 영세자는 대부모와 같이 2시까지 오시기 바라며, 유아세례도 같이 하오니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③ 오늘 공식 후에 성당대청소를 실시하니 친신자께서는 성의 있는 청소로 깨끗한 성장을 만듭시다. ④ 교무금-천년도교무금 미납자와 납부바라며 91년도분 미신일자는 신입바랍니다.

3. 미사시간 변경: 평일및주일 저녁미사 오후8시(3월24일 저녁부터 실시)

□ 지난주 봉헌금: 565,800원 □ 교무금: 739,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 성주간을 회생과 보속으로 거룩히 지냅니다.

1. 성삼일 안내: 성목요일(28일): 후7시30분 십자가의 길, 8시 최후만찬미사 성금요일(29일): 후7시30분 십자가의 길, 8시 십자가 경배 성토요일(30일): 후9시 미사(어린이미사없음)-초준비·학생회 판례. 2. 주간미사변경: 25일 저녁미사 7시, 26일 오전10시, 27일 저녁 미사 7시. 3. 부활대축일미사: 31일 오전9시~10시30분. 4. 영세식 및 유아영세식: 30일 미사(사무실에 신청서 접수). 5. 아치에스 행사: 오늘 오후2시(베이오마리에 단원봉행식). 6. 돼지저금통 봉헌: 반별로 모아서 28일(목) 미사 중에 봉헌. 7. 부활대축일 제대꽃 봉헌하실분: 수녀님께 연락. 8. 도서대출: 매주 공식미사후 제4교리실. 9. 청소구역: 주공3단지APT 동편.
□ 지난주 봉헌금: 384,700원 □ 교무금: 505,000원

* 그레고리안 성가의 밤: 3월 26일(화) 저녁 7시 30분, 장소: 전북학생회관(회원권구입은 각 본당 사무실에서)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명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성전보수헌금 바람. * 주일금 배기운동
1. 살미리아 꾸리아: 오늘 오후2시. 2. 2차헌금: 24일-사회복지 헌금 29일(성금요일)-나눔헌금(인성회). 3. 오늘은 교무급 남부 주일입니다(월급장장). 4. 평화방송사에 대한 간접회(평방노조): 25일(월) 저녁7시-소강장. 5. 합동판공성사: 27일(수) 오후8시. 6. 올드래마: 다음주 광성미사후. 7. 견진신청: 3월31일까지 마감-사무실신청 바람. 8. 농산물 직거래 신청: 사무실. 9. 성삼일: 목(28): ① 성유축성(10:30~10:30~중양) ② 만찬미사(19:30~19:30~전동) 금(29): ① 십자가경배(15시) 토(30): ② 부활초축성, 부활성 미사(19:30). 10. 부활대축일 공식미사후: 단체대합 유희이·배구대회. * 금주보수비현금액: 545,000원 * 현재도금총액: 198,754,882원 * 금주보수비신입액: 100,000원 * 현재신입총액: 243,119,618원 □ 지난주 봉헌금: 1,560,51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탁

*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찬미받으소서.

1. 성삼일 예절안내: ① 성목요일-주의 만찬미사(세례례) 저녁8시 가난한 이웃을 위한 봉헌있음. ② 성금요일-주의 수난예절. 십자가 경배 후8시 ③ 부활 성야미사-후8시(새미사 없음). 2. 부활대축일 미사 안내: 전9시, 전10시30분, 후3시, 후7시. 3. 축! 세례: 새신자 32분을 진심으로 축하하여 환영합니다. 4. 부활계란 통한: 30일 후6시까지, 반별로 두관씩 봉헌. 5. 통제식: 26일 전9시, 병자료를 모신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 6. 사랑의 권고 단식제(22일분): 별도봉투로 봉헌(2차). 7. 신학생 후원 저금통, 성미 수마니 봉헌: 28일까지 사무실. 8. 회의: 올드래마-광성미사후, 꾸리아-오후2시. 9. 성주간 전례: 유인물을 참조. □ 지난주 봉헌금: 727,360원 □ 교무금: 853,500원

* 화신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영근

1. 부활판공성사 일정: 25일(월)-동신·화산1가, 26일(화)-삼정·평화·성원, 27일(수)-금화·화산2가·신일(오전10시~12시, 오후3시~6시 저녁미사후) 화요일 밤미사 없음. 2. 주의만찬 미사: 28일(목)~오후7시30분. 3. 주의수난 미사: 29일(금)~오후3시. 4. 부활성야 미사: 30일(토)~오후8시. 5. 부활 대축일: 31일(일) 오전10시30분 미사후 나눔잔치. 6. 시순절 쾌지 저금통을 잘 키우고 계십니까? 7. 금주 전례: 최정운 녹서·봉헌-이현희, 한병간
차주 전례: 한병간 녹서·봉헌-장정심, 박영근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종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수현
사목회장 활수석

1. 축영세: 오늘 오후3시 미사중에. 2. 부활대축일: 전례 및 행사 안내. ① 부활대축일 성야미사: 토 밤10시, 부활대축일(일) 09:30, 11시, 오후7시 ② 구역별음식바자회(9시30분미사와 11시 미사후) (경품접수: 사무실에(금요일까지)). 3. 성삼일 전례안내: ① 성목요일: 11시 성유축성미사(중앙성당) ② 주의만찬 미사 ③ 미사후 밤9시부터, 금~오후3시까지 전신자 성시간. ④ 성금요일: ① 오후3시 십자가의 길 ② 오후8시 십자가 경배 및 영성체. ⑤ 성토요일: ① 06시미사 ② 오후10시부활대축일 성야 미사. 4. 사순절성미와 돼지저금통 봉헌식: 부활대축일미사(일). 5. 꾸리아: 금주 수요일 10시(교육관). 6. 대청소: 오늘 11시 미사후.
□ 1,013,700원 □ 교무금: 1,784,000원

* 효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창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홍두

1. 단식권고의 날: 광동현금의 날 2차헌금이 있습니다. 2. 반석회·애령회: 공식미사후. 3. 둘째회: 오후6:00. 4. 꾸르실료수료자 단합대회: 4월5일(금) 오전8:30 장소-완도대교. 5. 성주간 미사: 25(월)~27(수) 저녁8:00 성목요일 저녁8시. 성금요일 오후3시+의길, 저녁8:00 수난예절, 성토요일 저녁9:00시. 차주 모임: 요셉회, 나눔의 주일. 신축현금 충신입액: 88,150,000원 봉헌액: 180,000원 금주 전례: 해설-박명래 녹서① 송하영 ② 한병희
기독① 이인선 ② 이옥자 차주 전례: 해설-임창수 녹서① 김홍두 ② 정영호
기독① 박명래 ② 이영자 □ 지난주 봉헌금: 913,870원 □ 교무금: 1,434,000원